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며칠 전, 저녁 식사로 콩국수를 먹은 것이 잘못되어 밤새도록 고생했다. 아침이 되니 뺨한 눈빛의 해...

태극권이 몸에 익을수록 그러한 느낌의 지각은 점점 세밀하고 선명해진다. 기공을 통한 기혈 순환 훈련...

비단 몸만이 아니라 일상의 진행, 인생의 전개 과정에서도 정황은 비슷하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거...

부처님이 설하는 마음 공부에 열리다 보면 지금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가 안전과 평안과 성숙으로 이어...

中道라는 균형감각

중에 태극권의 달인이 한 분 있는데, 그 탁월한 태극권 경지도 놀라운 것이지만 술(術)의 고수(高手)들...

마음공부 열리다보면 말과 행동 자연스러워

타락의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점점 민감하게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관념이나 행동이 중도라...

잘 나갈 때면 쉽게 넘치고, 막힐 때면 곧 좌절과 낙망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곤 하는 중생이다. 권력이든...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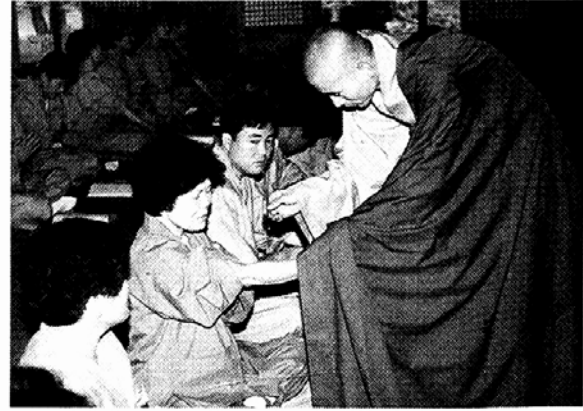
수계는 불제자 되는 필수과정

참불자의 길 재가자의 계율

옛날 한 스님이 상좌를 두었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 1주일 이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명이 짧았다. 그래서 스님은 집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

과 사상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그 실천의 길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수계다. 수계는 불자가 되는 필수과정이다.

교단에 귀의합니다"라고 함으로서 부처님을 닮은 삶을 서원하는 것이다. 오계는 첫째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不殺生),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며(不偷盜), 셋째는 청정행...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행을 닦는 것이다.

계행 구속아니지만 삶에서 실천 안하면 아무런 쓸모 없는 일

을 할 것이요 결코 사음을 하지 말며(不邪淫), 넷째는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不妄語), 다섯째는 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不飲酒)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의 본분공덕을 실현하는 길이다.

칠불통계는 비바시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일곱 부처님이 공명으로 수지했다. 즉 '모든 나쁜 짓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佛悉共,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것이 근본 사상이다.

보살계는 재가 불자가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계로 10중대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재가불자로서 해탈을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설한 10중대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서장' 통한 선 공부 22

유통판에 대한 답서(1)

병 사라졌는데도 약 그대로 쓴다면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옛날에 바수반두가 늘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육시(六時)에 예불하며 깨닫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귀의를 받았는데, 20주 사야다(偈夜多) 존자가 그를 제도하고자 하여 그를 파르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루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하고 범행(梵行)을 잘 닦아서 불도(佛道)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정진(精進)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얻지 못했습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도(道)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설사 무수한 세월 동안 고행(苦行)을 하더라도 모두가 헛됨과 망명됨의 뿌리가 될 뿐이다.'

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道)를 찾지도 않지만 또한 전도(顛倒)되지도 않는다. 나는 부처를 예경(禮敬)하지도 않지만 또한 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장좌불와(長坐不臥)하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나는 허리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것 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고 한다.' 바수반두는 이 말을 듣고서 무부지(無漏智)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목소리로 사야다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道)를 찾지도 않지만 또한 전도(顛倒)되지도 않는다. 나는 부처를 예경(禮敬)하지도 않지만 또한 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장좌불와(長坐不臥)하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나는 허리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것 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고 한다.' 바수반두는 이 말을 듣고서 무부지(無漏智)를 일으켰습니다.

게는 광란(狂亂)이 바로 병이므로 부처가 적정(寂靜)바라밀(寂靜波羅蜜)이라는 약으로써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그대로 쓴다면, 그러한 병은 더 큰 병입니다. 하나는 집어 들고 하나는 놓아버리니 어느 때에 끝마치겠습니까? 생사(生死)의 문제가 도래하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 변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음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며, 일음도 아니고 일음도 아닌 곳으로 옮겨 나아가, 단순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정한 과정을 밟아가거나 특정한 노력을 쌓아가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나 과정이나 노력은 전부 분별심으로 헤아려서 돌보 나누고, 의욕을 앞세워 만들고 조작하는 유행(有爲)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된 망상으로 이끌 뻔하다. 아직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성스럽고 행복하고 위대한 목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두 분별망상에서 나온 전도된 견해일 뿐이다.

또 놓지 않고 앉았던 지낸단든지 입을 봉하고 말을 하지 않는 단든지, 식사를 즐기고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앉아 있다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고 홀로 지낸다든지 하는 등의 고행(苦行)

은 특정한 병에 대한 일시적 약 처방으로 유효한 것일 뿐, 이러한 행위를 역시 유행(有爲)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마음공부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마음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하여 병들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행행(有爲)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유행행은 상(相)을 따라서 들로 나누어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의 소산이다. 마음은 본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에서 머문다면 이것은 전도망상이다. 전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바로 본래 마음(이오 깨달음)이요 부처(이오 달리 해야 할 일)는 아무 것도 없다. 본래 마음은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모든 경우에 한결같다. 공부인은 이 한결같은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봉인사 위빠사나 여름 수련 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에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월·8월 여름수련회 수련일정

Table with columns: 수련내용, 날짜, 기간, 회비(원), 지도스님

- 3박4일, 4박5일: ·입실 - 오후 5시 ·퇴실 - 오후 3시
주말 수련회: ·입실 - 오후 4시 ·퇴실 - 오후 3시 (유경험자인 경우 주말 수련회에 참여가능)
준비물: 편안한 복장·신발·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
연락처: 031) 574-5585, 529-5585
참가신청: 전화로 신청 후 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277-25-0000-906 ·예금주: 봉인사)
* 미리 신청해 주세요.

봉인사 한길정진원

봉인사 어린이 수련회

"신나는 여름 부처님을 뵈어요"

수련일자 7월 24일(화) ~ 26일(목) 2박 3일
만나기 - 24일 오후 2시
집으로 돌아가기 - 26일 오후 2시

참가비 3만원

수련내용 하나. 부처님 모자이크 (협동정신 키우기)
둘. 발우공양 (깨끗한 음식처리)
셋. 밤하늘 별자리 관찰 (내별은 어디 있을까?)
넷. 신나는 레크레이션
다섯. 아마존 유역을 답사해 볼까? (코엑스 아쿠아리움 수족관 답사)
여섯. 찬불가 배우요
일곱. 수련기간 행사 신문 만들기 (보도정신)

어린이 불교성전



아빠와 함께 읽는 부처님의 지혜, 엄마와 함께 하는 부처님의 자비.

-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뛰어난 제자들
다듬어 가꾼 믿음
증명: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
감수: 법정 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
말아엮은이: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
가격: 1만원
보급처: 각 유명서점

도서출판 인길 (구 - 단이슬)

Tel : 031-574-5585 Fax : 031-574-0808